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받을 때는 깊은 감명의 잠언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 보면, ‘왜 이 잠언을 썼지?’ 하게 된다. 그때 그 처지에서 잠언을 받고서 때가 지나 처지와 상황이 다른 차원에서 읽어 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의 계시의 잠언이다.
2. 고로 계시받은 자가 바로바로 뛰어다니면서 전해 줘야 된다.
3. 사람은 너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자는 너를 찾으신다. 왜 찾았냐고 물어보아라. 하나님과 성자가 너를 찾아도 네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 모른다.
4.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도 모른다. 신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모습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인간이 전능자 신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다.
5. 신과의 대화는 인간이 먼저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6. 세상은 모두 자기 존재 중심이다.
7.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펴기 바쁘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자기중심의 말뿐이다. 자기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고로 네가 가던 길이나 어서 가라고 자유의지대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 그는 자기중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인생 열차에서 내렸는데, 그제야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8. 내가 전능자 하나님과 나의 구원주인 성자와 붙어 사니, 누구든지 내게 붙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도 일체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9. (어떻게 불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것이냐?) 자기 자신과 싸워 불의를 이긴 것이 사탄과 싸워 이긴 것이다.

10. 자기 육성을 죽이고 불의를 이긴 자가 영적 대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다.

11. 사탄과만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자기 육성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여 자기와 전쟁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사탄은 너를 침범하여 너의 육을 가지고 너를 이기려 하지, 조건 없이 그냥은 못 이긴다.

12. 자기 육성을 완전히 멸해 버려라! 이러한 자가 영적 대전쟁의 영웅이다.

13. 사탄은 너의 육성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인 너의 영성과 싸워 이기게 하려 한다. 그래서 너의 육성이 너의 영성을 이기면, 사탄은 너의 육성을 통해 너를 침범한다. 매일 그같이 한다. / 고로 자기 육성을 이긴 자는 사탄을 이긴 자다! / 사탄은 너희 육이 자기 육도 아닌데 자기 육으로 쓰면서, 너희 영성을 꺾고 하늘의 뜻을 꺾고 너희 육이 하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 말씀의 도끼로 사탄의 골을 쪼개 놓아라! 말씀의 도끼는 너희 모두에게 다 줬는데 안 써 먹어서 빨갛게 녹이 슬었다. 사탄이 녹슨 도끼 보고 안전하다 한다. / 또한 사탄은 너희 육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안일주의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같이 너를 인도하는 사탄의 발목을 말씀의 도끼로 찍어 영원히 불구자로 만들어라!

14. 사탄이 너에게 왔는데, 사탄을 두고 잠자느냐. 방에 모기만 들어와서 웅웅 거려도 신경 쓰여 잠 못 자는데, 사탄은 그보다 만 배나 더 해를 끼치고 유유히 떠난다. 말씀의 도끼를 던져서 사탄 뒤통수에 꽂아라!

15. 선생은 주님께 배워서 돌의 비밀과 값을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은밀하게 값싸게 돌을 구해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었다. 이미 15년이 흘렀으니, 이제 모두에게 알려 준 것이다. 돌 하나 보고서 논도 사고 받도 산

것이다. 논과 밭에서 나온 돌이 논과 밭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16. 이와 같이 ‘진리의 보물’이 들어 있는 역사를 네 것으로 삼아라!

17. ‘진리’ 하나 가지면 부자가 된다. 주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 선생은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예정론’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틀고 비행하기 시작했다.

18. 그 귀한 시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도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만큼도 위력을 못 나타내니, 진리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단들도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데, 시대 온전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껌속말로 전하니,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19. 시대 재림의 말씀은 2000년이나 기다렸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지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르는 말씀이다. 그들은 섭리의 진리를 가져다가 외람되게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전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로 간다.

20. 이단들은 6개월씩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사귀고 친해져서 교리보다 인맥으로 뻗어 나간다. 그러면서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며 안 가르치고 호기심을 주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는다. 마치 시골 시장의 약장사같이 보여 줄 것은 안 보여 주고 약은 다 팔고 가듯 한다. 그들이 교리를 내놓으면 그릇된 것이 탄로 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섭리사는 이 귀한 진리를 거저 주려고 한다. 먼저 사람을 만들고, 인식관을 바로 해 주고, 맨 나중에 진리를 줘야 한다. 쉽게 끓은 물은 쉽게 식는다.